

계율을 스승 삼아 힘써 정진(精進)하라!

- 부처님 열반재일(涅槃齋日) 법회 봉행 -



지난 3월 9일(음력 2월 15일) 부처님 열반재일을 맞이하여 봉원사 대웅전에는 소임 스님들의 참여하에 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열반재일은 2천6백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드신 날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성도재일(음력 12월 8일), 출가재일(음력 2월 8일)과 함께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다.

중생구제(衆生救濟)의 대서원(大誓願)을 세우고 출가해 6년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서 정각(正覺 : 청정한 본래 마음의 바른 깨달음. 대각(大覺), 삼보리(三菩提))을 이룬 부처님께서서는 교진여 등 다섯 제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다. 그 후 45년 동안 인도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중생을 구제하시다가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에 자리를 펴시고 열반에 들 준비를 하셨다.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서는 “이 몸도 늙을 대로 늙어 내 삶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마치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엮어매어 지탱하고 있듯이, 내 몸도 그와 같다. 나의 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보아서 무엇하겠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라.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제자는 정법(正法 :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서로 전하고 이어받으며, 여래의 법신(法身)이 상주하여 항상 사라지지 않게 하라.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精進)하여라.”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평안히 열반에 드셨다.

진리를 찾아 왕자의 자리도 박차고 출가하여 건디기 어려운 고행 끝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여 몸소 자비를 구현하신 부처님은 이와 같이 열반에 드셨다. 이날이 부처님께서 80세 되시던 해, 음력 2월 15일 야반(夜半)이었다.

“세상은 모두 무상하여, 만나면 반드시 떠남이 있는 것이니, 근심과 괴로움을 마음에 두지 말라.”

제자들을 위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간곡한 당부에는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배어있다. 수행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정진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또 의문은 없는지 되묻는 자상함에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생사의 고해(苦海)를 헤매는 중생을 두고 떠나시는 부처님의 심정은 자식을 두고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께서서는 그렇게 육신을 버리시고 사바세계(娑婆世界)를 영원히 떠나버리신듯 보이지만 이는 중생의 착각이다. 중생은 미혹(迷惑)의 번뇌로 마음이 가려있기에 보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항상 마음의 눈을 뜨면, 언제든지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육신은 떠나셨지만, 부처님의 유혼은 남아서 계율을 스승 삼아 힘써 정진하여 생로병사의 큰 바다를 어서 빨리 벗어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일깨운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옵기를 삼보전에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부처님의 크나큰 은혜가 이 땅에 내려져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봉원사에서는 4월 30일(목요일) 봉행 예정되었던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일정을 윤 4월 8일(양력 5월 30일 토요일)로 연기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함이오니 신도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도님들께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와 관등법회 등에 무루 동참하시어 온 세상을 불국정토로 가꾸어 우리 모두 부처님의 은혜와 공덕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안 내

- 일 시 : 2020년 5월 30일(음력 윤달 4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매시 정각 축원)
- 장 소 : 봉원사 도량
- 문 의 : 각 화주스님 및 종무소(02-392-3007~8)
- 동안내(수시접수)
 - 대웅전 1년 가족등 : 50만원
 - 설법전 1년 가족등 : 10만원
 - 명부전 1년 영가등 : 10만원
 - 4·8 마당 가족등·영가등 : 5만원

※ 사전에 화주스님께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등 신청은 예년과 같이 접수 받습니다.(현재 접수중)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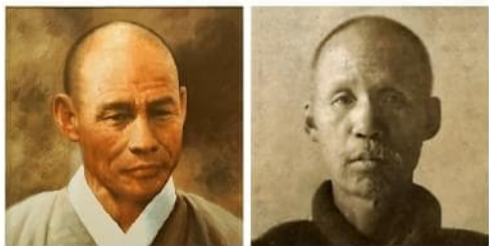
삼일절 기도법회 회향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에 봉원사 대웅전에서는 삼일절을 맞이하여 나라를 되찾고자 분연히 일어나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영가들을 위로하는 법회가 봉행되었다. 기도 법회는 10시 정각 순국선열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신도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염려해 봉원사에서는 일반 신도들의 참여 없이 소임 스님들만 엄숙히 불공을 드렸다.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나라를 되찾고자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족해방운동이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가혹한 무단통치를 받던 시기에 독립을 추구하던 의병이나 독립운동가들은 더 이상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조국을 떠나 북간도나 연해주, 그리고 상해나 미국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들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학교를 세워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 독립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누구도 독립투쟁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나라의 녹을 먹고 혜택을 입은 조선왕조 시대의 관료나 그 후예들이 마땅히 독립을 위해 나서야 했으나 그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나라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비폭력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불교계에서는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 단 2명만이 민족대표 33인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3·1운동 준비과정에서 불교 11명, 천도교 11명, 개신교 11명으로 합의되었던 민족대표 구성 비율이



만해 한용운

백용성 선사

난항을 겪자 용성 스님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 수용하였다고 한다.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기미년 3월 1일에 비폭력적, 평화적, 전국적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시주접수처 안내



봉원사 도량내에 새로운 기와불사 및 시주접수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주(施主)란 글자 그대로 '보시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도님들은 새로운 시주접수처에서 시주공덕을 쌓으시어 시련이 사라지고 더 많은 이익과 결실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12시, 오후 1시 - 3시
- 문 의 : 종무소 02-392-3007~8
- ※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수처 시간을 위와 같이 조정, 운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작업 실시



2020년 3월 16일 봉원사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방역 소독작업이 실시되었다. 방역작업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더불어민주당 이동화 구의원과 서대문구 새마을지도자 신촌동협의회 김성구 회장, 그리고 구청 방역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셨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방역작업은 종무소를 시작으로 삼천불전, 명부전, 미륵전, 대웅전, 대방과 범종각 등 경내 구석 구석을 돌아가며 실시되었고 12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방역작업이 끝난 후 주지 운봉 스님께서는 이동화 구의원에게 “꽃샘 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방역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신도님들과 함께 불공을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경자(庚子)년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취소 안내문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부득이하게 생전예수재 봉행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도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대한의사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마스크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올바른 마스크 사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손 위생과 함께 감염의 전파 차단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01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는 시기에 감염의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02 보건용 마스크(N95, KF94, KF80)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의 감염 전파 차단에 효과적이며 질병이 없는 사람에서도 감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03 보건용 마스크는 방어력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경우 KF80 사용으로 충분합니다. 예) N95, KF94는 방어력은 더 높지만 장시간 사용이 어려워 효율성이 떨어짐.
- 04 외과용 마스크 또는 치과용 마스크 역시 필터 기능이 있어 감염의 전파 차단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05 면 마스크 사용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 06 마스크를 재사용 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 07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도중에도 그대로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찰을 위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벗습니다.)
- 08 마스크 사용과 함께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① 손 위생 철저 및 개인용품 위생 관리 (특히, 핸드폰)
 - ② 기침 예절 지키기
 - ③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기
 - ④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불필요한 외출, 모임, 단체 활동 자제하기)
 - ⑤ 실내나 대중교통 등 밀폐된 공간 자주 환기하기
 - ⑥ 증상이 있을 때에는 1339 콜센터 또는 지역보건소(지역번호+120)에 전화하여 상담

출가, 중생을 향한 위대한 약속

- 부처님 출가재일(出家齋日) 법회 봉행 -



지난 3월 2일(음력 2월 8일) 봉원사 대웅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도들의 참여 없이 사부대중 소임 스님들만으로 부처님 출가재일 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부처님의 일생을 말할 때 불가(佛家)에서는 크게 8부분으로 구분하여 이를 팔상(八相)이라 한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과 네 번째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이 출가재일에 해당한다. 사문(四門)은 동서남북의 네 문을 말하고, 유관(遊觀)이란 구경한다는 말이다. 즉 사문유관이란 싯다르타 태자가 동서남북의 큰 문 밖으로 나가 세상 구경을 하신 사실을 말한다.

어느 날 태자는 동문(東門)으로 구경을 나갔다가 허리가 굽은 기력이 쇠한 백발노인을 마주친다. 여기서 태자는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되고 추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남쪽 성문 밖으로 나갔다가 병들어 신음하는 한 병자와 마주치고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인생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는 서쪽 성문 밖에서 상여(喪輿) 행렬을 보게 된다. 이 행렬을 통해 죽음을 보게 되고 인생의 무상(無常)함을 느껴 크게 충격을 받는다. 태자는 이 세 곳 성문 밖의 풍경을 보고 삶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괴로운 심정으로 나날을 보낸다.

‘인생(人生)이란 병들고, 늙어가며, 결국 죽어야 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북문으로 나가 돌아오는 길에 삭발하고 노란 옷을 걸친 사람을 보았는데 얼굴에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득 담고 있어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부에게 물어보니 그는 출가하여 수행하는 사람인데 수행자(사문(沙門))라 부른다는 것이었다. 태자는 그 수행자에게 다가가 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길 “내가 일체 세간의 모든 것을 보니 다 무상합니다. 이런 것을 관(觀)하고 나서, 일체 세속의 모든 일을 버리고, 친족을 멀리 여의고, 해탈을 구하기 위해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方便(方便)을 행하여 모든 목숨을 살릴 것인가?’ 이 일에 만족함을 알고 법다운 행을 잘 이행하여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태자여! 이런 까닭에 나는 이를 ‘출가’라 부르나이다.”

싯다르타 태자는 이 사문유관을 통하여 '세속의 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출가하여 영원한 평화를 얻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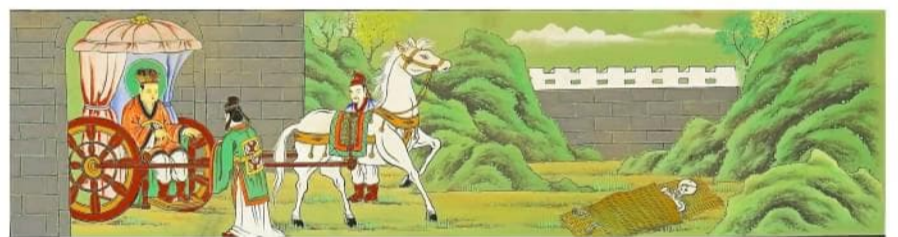
수행자를 만난 후 태자의 인생관은 점차 변모되었다. 마침내는 부왕에게 출가하여 수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정반왕은 크게 놀라서 달래고 타일렀지만, 태자의 결심은 변동이 없었다. 결국 부왕은 왕위를 이을 왕손을 얻기 전에는 출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워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시켰다. 부왕은 태자가 결혼을 하면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해탈의 길을 찾으려는 태자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들 '라훌라(rahula, 장애, 속박이라는 뜻)'가 태어나자 태자는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에 마부를 깨워 말을 타고 성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카필라성(城)을 바라보면서 사자처럼 외쳤다.

“이제 나는 차라리 스스로 절벽 위에서 이 몸을 던져 큰 바위에 떨어질지언정, 모든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을지언정, 또한 스스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아 죽을지언정, 만약 내가 마음에 다짐한 대로 중생들을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카필라성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

왕궁을 나온 태자는 말과 마부를 돌려보내고 값비싼 옷을 벗어 사냥꾼의 낡은 옷과 바꾸어 입고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은 뒤, 당대의 유명한 수행자들을 찾아 외롭고 힘든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왕위의 자리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마저 뒤로 한 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 이날이 태자 나이 29세 되던 해, 음력 2월 8일이었다.

유성출가(踰城出家)는 이처럼 싯다르타 태자가 성벽(城壁)을 넘어서(踰 : 넘을 유) 출가를 결행한 사실을 말한다.

싯다르타 태자는 결코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고심한 끝에 출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병들의 고통이 없고, 늙음의 고통이 없고, 온갖 구속과 장애에서 벗어나, 근심과 걱정과 번뇌가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서 출가한 것이다. 이 출가가 바로 불교 탄생의 결정적 계기라고 볼 수 있다.



팔상성도 - 사문유관상



팔상성도 - 유성출가상

제22장 지옥품(地獄品) : 악을 행하면 죄를 받는다

▶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可避不避 家就不就 翫習邪見 死墮地獄
가피불피 가취불취 완습사견 사타지옥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일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삿된 소견으로 함부로 행동하면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리

▶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고

可近則近 可遠則遠 恒守正見 死墮善道
가근칙근 가원칙원 항수정견 사타선도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것은 멀리 하면서
한결같이 바른 소견 지켜 나가면
죽어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리

모든 생명이 삶을 되찾는 새봄

- 삼월삼진 법회 원만 봉행 -



지난 3월 26일(음력 3월 3일) 대웅전에서는 봉원사 교무 법수 스님의 집전으로 삼월삼진 불공이 원만히 봉행되었다. 사찰 경내에 그득한 봄기운과 함께 활짝 핀 꽃들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었던 이날, 혹시 모를 신자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봉원사 소임 스님들만으로 여법하게 치러졌다.

삼월삼진날은 봄을 알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이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며, 뱀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즉 이날은 만물의 희망이 넘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또한, 이날 흰나비를 보면 그해에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그해의 재수가 좋을 거라 점을 치기도 한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수가 겹치는 날을 절기로 삼아왔는데 음력 1월 1일 설날, 음력 3월 3일 삼진날, 음력 5월 5일 단오, 음력 7월 7일 칠석, 음력 9월 9일 중양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삼진날은 9월 중양절과 짝을 이루어 귀하게 여겼는데 청명, 한식과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풍속이 혼숙되어 있기도 하다.

삼진날의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서는 신라시대 이래로 모셨다고 하니 고대로부터 내려온 봄날을 기리는 전통의 연장으로 짐작

할 뿐이다. 삼진날을 대표하는 풍속으로는 야외로 나가 나물을 캐고 꽃을 즐기는 '답청(踏青)놀이' 등이 있고, 나라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던 기로연(耆老宴)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삼진날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상서로운 날이기도 하다.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음력 3월 3일에 행해졌던 각종 민속에 더해, 번뇌를 없애고 생명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희망을 비는 불교 의식이 행해져 종교의례로 자리 잡았다. 삼진불공은 모든 생명이 삶을 되찾는 계절의 의미에 맞게, 감로의 물로써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차 공양(供養), 일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뜻에서 다른 생명을 놓아주는 방생(放生), 그리고 생명의 안녕을 구하는 산신제(山神祭)로 이루어진다.

이날, 법회 봉행이 끝난 뒤 법사 만춘 스님은 소임 스님들에게 "코로나19로 안팎이 힘든 시기에 법회를 치르느라 수고했다.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하셨다. 아울러 '예와 불공, 그리고 염불 내용도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그 이유에 관해 연구해 볼 것을 점언하셨다.

부처님오신날 특집

- 부처님오신날의 유래와 풍습 -



부처님오신날의 유래

- 신라의 호국불교와 융화된 부처님오신날
이날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라 하여 불탄일(佛誕日) 또는 욕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하나,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初八日)이라고 한다.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佛家)에서 하던 축의행사(祝儀行事)였으나 불교가 민중 속에 전파됨에 따라서 불교의식도 차츰 민속화 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라에서는 여러가지 불교 행사가 성했는데,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이 불교를 호국(護國)의 바탕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교행사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세시풍속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병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팔관회(八關會)는 불교행사가 신라의 세시풍속으로 승화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처님오신날은 불도의 행사가 신라의 호국불교로 승화된 이래,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조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민속과 동화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의 풍속

- 가장 대표적인 풍속은 관등(觀燈)놀이
사람들은 이날을 관등절, 연등절 또는 등석(燈夕)이라

고도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여러 날 앞두고 가정이나 절에서는 여러 가지 등을 만든다. 이때 가정에서는 가족의 수대로 등을 만든다. 부처님오신날 며칠 전부터 뜰에 등간(燈竿)을 세워 두고 간상(竿上)에 꿩 꼬리털을 꽂고 물들인 비단으로 기를 만들어 다는데, 이를 호기(呼旗)라고 한다. 이 호기에 줄을 매고 그 줄에 등을 매단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등간을 만들지 못하는 집에서는 나뭇가지나 혹은 추녀 끝에 빨랫줄처럼 줄을 매고 그 줄에 등을 매달아 두기도 한다.

- 부처님오신날 저녁이 되면 등에 불을 밝힌다.
이 등석행사는 그 이튿날인 9일에 그치는데, 부유한 집에서는 큰 대를 수십 개씩 엮어매어 쓰기도 하고 해와 달의 형상으로 만들어 꽃아서 바람에 따라 굴러 돌게 하기도 하며, 굴러 돌아다니는 등을 매달아서 그 등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마치 탄환이 달아나듯 하게도 한다. 때로는 종이애나 화약을 싸서 이것을 노끈이나 새끼줄에 엮어매어 불을 당기면 터져서 꽃불같이 비오듯 하게도 하고, 종이를 용을 만들어 바람에 날려 띄우기도 하며, 또는 인형을 만들어 옷을 입히고 엮어 띄워서 요동케 하여 놀기도 한다. 또 옛날 각 상점에서는 등

대를 서로 높이 세우려고 다투어 승부삼아 만들기도 한다. 등의 모양은 과실, 꽃, 어류 또는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을 본떠서 만들기 때문에 그 이름만 해도 수박등, 마늘등, 참외등, 연화등, 목단등(牧丹燈), 잉어등(鯉魚燈), 거북등, 봉등(鳳燈), 계등(鷄燈), 학등(鶴燈), 오리등, 일월등(日月燈), 선인등(仙人燈), 칠성등(七星燈), 고등(鼓燈), 누각등(樓閣燈)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등에는 '태평만세(太平萬歲)', '수복(壽福)' 등의 글을 쓰기도 하고, 기마장군상(騎馬將軍像)이나 선인상(仙人像)을 그리기도 한다.

또 화약을 층층으로 새끼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불꽃이 튀면서 퍼지는데, 이러한 놀이로 흥을 돋우기도 하고 때로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줄에 매달아 바람에 흔들리게 하여 놀기도 한다.

부처님오신날의 계절음식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주로 먹는 음식으로는 찐떡(蒸餅), 화전(花煎), 어채(魚菜), 어만두(魚饅頭), 미나리강회 등이 있다.
찐떡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방울같이 빚어서 술에 찐다. 그런 다음에 팔 속에 꿀이나 설탕을섞어서 방울 속에 넣고, 또 방울 위에는 대추를 붙인다.
화전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동그랗게 만들고 진달래꽃을 붙여서 기름에 지지는 것이다.
어채는 생선, 국화잎사귀, 파, 석이버섯, 전복, 달걀 등을 가늘게 썰어서 섞은 것인데, 여기에 초고추장과 참기름을 쳐서 먹는다.
어만두는 생선을 두껍게 저며 그 조각에 고기를 넣어서 익힌 것이다.
미나리강회는 미나리를 삶아서 파 하나, 마늘 하나를 함께 하여 고추 모양으로 감아서 회를 하는 것인데,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부처/님/전/생/이/야기

본생경(자타카) 59

자타카(Jataka)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려졌고 그 후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동서양으로 이어져 이슬람화와 아라비아인 나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판소리 '별주부전'으로 발전한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1세기부터 6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67년 촉법란이란 분에서부터 285년 촉법호라는 분의 생경(生經) 번역까지 5차례에 걸쳐 700여 편의 본생 설화가 한역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일본에서는 본생담(本生譚), 중국에서는 본생주(本生注)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물고기 떼의 전생 이야기

사자(使者)의 전생 이야기

보살이 어떤 지주의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러 아우와 같이 시골에 가서 돈 1,000냥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강가에서 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배가 고파 도시락을 먹고 남은 밥을 물고기들에게 나눠주고, 그 공덕을 강의 신에게 들렸다. 그리고 모래 위에 옷을 펴고 누워 잠깐 잠이 들었다.

아우는 잠든 형을 보자 갑자기 욕심이 발동했다. 시골에 가서 받은 돈 1,000냥을 혼자다 독차지하고 싶어 돈뭉치와 비슷한 자갈뭉치를 만들어 몸에 지녔다.

그 뒤 배를 타고 배가 강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였다. 아우는 일부러 배를 흔들리게 하여 아까 만든 자갈뭉치를 강물속에 던졌다. "형님, 제가 그만 잘못하여 돈뭉치를 물 속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글쎄, 물에 빠진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수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형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돈이 아까웠지만, 동생의 마음부터 따뜻하게 위로했다.

강 속에 있던 강의 신은 생각했다. '나는 아까 저 사람이 준 밥을 먹고 신력이 늘어났다. 이제 내가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강의 신은 그런 생각 끝에神通력을 발휘했다. 입이 큰 물고기에게 그 돈뭉치를 삼키도록 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우는 형을 묘하게 속였다 싶어 기뻐하면서 돈뭉치를 펼쳐 보았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그 속엔 돈 대신 자갈이 가득 들어 있었다. 물 속에 자갈뭉치를 던진다는 게 그만 돈뭉치를 던져 버린 것이다. 그는 심장의 피가 마르는 것 같아 침대 모서리를 붙잡은 채 거꾸러졌다.

그 무렵, 어부들이 강으로 나가 그물을 던졌다. 돈뭉치를 삼킨 물고기가神通의 힘을 부려 그 그물에 걸렸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팔기 위해 서둘러 마을로 들어갔다. "정말 큰 물고기군. 도대체 얼마를 주면 이 물고기를 팔 텐가?" 물고기가 탐난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값을 물었다. "1,000냥과 7마사카를 주면 팔겠습니다." "1,000냥? 1,000냥이라니? 그렇게 비싼 물고기가 어디 있던 말인가?" 사람들은 어부의 말에 조소를 금치 못했다. 어부는 다시 물고기를 팔기 위해 이리저리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보살의 집 앞에 이르러 다시 큰소리로 외쳤다.

"물고기 사세요. 아주 크고 맛있는 물고기입니다." "그 값이 얼마인가?" 보살이 고개를 내밀고 값을 물었다. "7마사카만 주십시오."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에 파는가?" "다른 사람한테는 1,000냥과 7마사카에 팝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만 7마사카에 팔겠습니다." "나한테만 그렇게 싸게 팔다니!" 보살은 7마사카를

주고 그 물고기를 사서 아내에게 주었다.

아내는 물고기를 요리하기 위해 배를 갈랐다. 그러자 물고기 뱃속에서 1,000냥이 든 돈뭉치가 나왔다. 아내는 놀라 보살에게 달려가 그 돈뭉치를 보여주었다. 보살은 돈뭉치에 해놓은 표시를 보고 그것이 자기 것임을 당장 알아차렸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1,000냥과 7마사카에 팔려고 하면서도 유독 나한테만 7마사카에 팔겠다고 한다. 그것은 그 1,000냥이라는 돈이 원래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보살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계승을 읊었다.

그 물고기값이 1,000냥이 넘어
믿을 수 있는 이 아무도 없네
더구나 내게는 7마사카가 있었을 뿐
그렇지 않았다면 물고기 한 개미 샀을 것을.

보살은 계승을 읊고 나자 어떻게 해서 그 돈뭉치가 수중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했다. '도대체 누구 덕택으로 이 돈이 내 손에 들어왔을까?' 보살은 곰곰 생각해 보았으나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그때 강의 신이 공중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보살에게 말했다.

"나는 강의 신, 하신(河神)이다. 너는 먹다 남은 밥을 물고기에게 주고, 그 공덕을 내게 돌려주었다. 그 보답으로 나는 네 재산을 보호해 준 것이다." 하신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 계승을 읊었다.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공양의 공덕을 내게 주었다.
나는 너의 공양을 마음에 새겨
또 네가 베푼 그 존경도 마음에 새겼다.

하신은 계승을 다 읊고 나서 아우의 거짓 행위로 말했다. "지금 네 아우의 심장의 피가 다 말라 쓰러져 있다. 나쁜 마음을 먹는 이는 결코 변영하지 못한다. 나는 그대 재산을 없애지 않으려 여기 가지고 와서 그대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도둑놈 아우에게 주지 말고 전부 그대가 가져야 한다."

나쁜 마음 가진 자에게 변영은 없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악을 행한 그에게는
신도 아무 물건을 주지 않는다.

하신은 악행을 저지른 아우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아 다시 덧붙여서 계승을 읊었다. 그러나 보살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우에게도 돈 500냥을 주었다.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그 왕자였다. 그는 성년이 되자 득차시라에서 온갖 기술을 다 배우고 부왕이 사망하자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는 상당히 미식가였다. 이름을 미식왕이라고 할 정도로 음식에 탐을 냈다. 한 번 식사에 10만 냥이 드는 사치스러운 식사를 즐겼다. 또 식사할 때는 집안에서 조용히 하지 않고 자기가 식사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다. 보옥을 아로새긴 전각을 짓고 황금의 옥좌에 앉아 왕족 처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값비싼 그릇에 온갖 맛난 음식을 다 먹었다. 한번은 한 사내가 미식왕이 먹는 음식을 보고 자기도 그 음식을 먹고 싶어 꾀를 생각해 내었다. "대왕님, 저는 사자(使者)입니다. 사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큰소리를 치면서 왕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당시 그 나라에서는 "나는 사자다." 하고 왕에게 다가 가면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는 풍습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얼른 그에게 길을 터워 주었다.

사내는 재빨리 나아가 왕 앞에 차려진 음식 한 덩이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호위병이 사내의 목을 베려고 칼을 뽑아 들었다. "칼을 거둬라! 그리고 그대는 아무 염려 말고,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도록 하라." 왕이 호위병에게 소리치고는 사내에게 마음껏 음식을 먹도록 권했다. 사내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왕의 요리상에 앉아 게 걸스럽게 음식을 먹어댔다. 식사가 다 끝나자 왕은 사내에게 음료와 맛있는 과자를 권하면서 물었다.

"벗이여, 그대는 아까 '나는 사자다.' 하고 소리쳤는데, 그러면 누구의 사자인가?"

"대왕님, 저는 탐욕의 사자이자, 탐욕의 사자입니다. 탐욕이 내게 명령하여 사자로 보냈습니다."

왕은 사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각했다. '저 사내의 말은 진실이다. 모든 생물은 다 탐욕의 사자다. 그들은 모두 탐욕의 힘으로 움직인다. 탐욕은 실로 모든 생물을 움직이게 한다. 아아, 이 사내는 정말 재미있는 말을 한다. 나는 이 사내에 의해 지금까지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 왕은 사내가 마음에 들어 많은 상을 주었다.

● 사보 후원금 ●

이승환 1만원(인공스님)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걱정 싹~”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업소용 음식물소멸기

가정용 음식물소멸기

살균수 생성기 싹수

- 캐나다 벤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 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주)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 재미있는 불교전설- 오대산 동대관음암

비단장수의 구도심(求道心)



오대산 동대관음암(東臺觀音庵)

아주 옛날, 비단 행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다. 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는 아주 효심이 지극했다. 어느 날 비단집을 짊어지고 강원도 대관령을 넘어가다가 고갯마루에서 잠시 쉬고 있던 그는 이상한 노스님을 한 분 발견했다.

누더기를 입은 노스님은 길옆 풀숲에서서 한참이 지나도록 꼼짝을 않는 것이었다.

청년은 궁금했다.

“왜 저렇게 서 있을까? 소변을 보는 것도 아니구. 거참 이상한 노릇이네.”

한참을 바라보던 청년은 궁금증을 견디지 못해 노스님 곁으로 다가갔다.

“스님! 아까부터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서있는 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청년은 다시 물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서있는 노스님은 청년이 재차 묻자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를

피우며 입을 열었다.

“잠시 중생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있네.”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한데 중생에게 공양을 베풀다니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는 말이로군.”

청년은 궁금증이 더 커졌다.

“어떤 중생들에게 무슨 공양을 베풀십니까?”

“웃 속에 있는 이와 벼룩에게 피를 먹고 있네.”

“그런데 왜 그렇게 꼼짝도 않고 서 계십니까?”

“내가 움직이면 이나 벼룩이 피를 빨아 먹는 데 불편할 것이 아닌가.”

스님의 말을 들은 청년은 큰 감동을 하였다. 청년은 비단장수를 그만두고 스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순간, 청년의 뇌리에는 집에 계신 흠어머니가 떠올랐다. 청년이 잠시 망설이는 동안에 노스님은 발길을 옮겼다. 생각에 잠겼던 청년은 눈앞에 스님이 보이지 않자 비단 보통이를 팽개치고

어느새 산길을 오르고 있는 노스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스님은 청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이윽고 오대산 동대관음암에 도착하자 스님은 청년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는 어인 일로 날 따라왔고?”

“저는 비단을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단장수입니다. 오늘 스님의 인자하신 용모와 자비행을 보고 문득 저도 수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부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청년은 간곡히 청했다.

“네가 수도승이 되겠다 말이지. 그렇다면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겠느냐?”

“예 스님! 무슨 일이든지 시키기만 하십시오. 이 몸 힘 닿는 대로 다할 것입니다.”

청년의 결심이 굳은 것을 확인한 노스님은 그의 출가를 허락했다.

이튿날 아침, 스님은 새로 들어온 행자(비단장수 청년)를 가까이 불렀다.

“오늘 중으로 부역에 저 큰 가마술을 옮겨 새로 걸도록 해라.”

청년은 흠을 파다 짚을 섞어 반죽한 후 술을 새로 걸었다. 한낮이 기울어서야 일이 끝났다.

“스님, 술 거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오냐, 알았다.”

스님은 점점하시려는 듯 부역으로 들어가셨다.

이리저리 살펴보신 스님은 “걸긴 잘 걸었다만 이 아궁이엔 이 술이 너무 커서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으니 저쪽 아궁이로 옮겨 걸도록 해라.” 하고 이르고는 나갔다.

청년은 다음날 한마디 불평도 없이 스님이 시킨 대로 술을 떼어 옆 아궁이에

다시 걸기 시작했다. 술을 다 걸고 부뚜막을 곱게 맥질하고 있는데 노스님이 기척도 없이 불쑥 부역에 나타나셨다.

“인석아, 이걸 술이라고 걸어 놓은 거야. 한쪽으로 틀어졌으니 다시 걸도록 하여라.”

노스님은 짚고 있던 석장으로 술을 밀어 내려앉혀 버렸다.

청년이 보기엔 전혀 틀어진 곳이 없었지만, 다시 하라는 스님의 말씀대로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새로 술을 걸었다. 그렇게 술을 옮겨 걸고 허물어 다시 걸기를 아홉 번 반복했다.

드디어 노스님은 청년의 구도심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술을 아홉 번 고쳐 걸었다는 뜻에서 구정(九鼎)이란 범명을 내렸다.

범명을 받은 구정 스님은 고향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다 들은 노모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오! 참으로 장하구나. 대단한 결심을 했으니 어미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어디 산 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부디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큰스님이 되는 것이 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일이니 명심토록 해라.”

그 길로 집을 떠나 산으로 돌아온 구정 스님은 뒷날 크게 명성을 떨친 구정 선사가 되었고 스님의 수행은 오늘에도 입산 출가자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관세음보살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상조 서비스 “유성라이프”

- 차별화된 100% 후불제 시스템

- ▶ 애플런스 관내제공
- ▶ 장례1급 지도사 파견 및 도우미 파견
- ▶ 고급오동관 등 최고급 고인용품 제공
- ▶ 남여 상복 등 의전용품 제공
- ▶ 리무진 버스 45인승 서비스(화장장 왕복 제공)
- ▶ 운학원통 유골함 제공
- ▶ 공원묘지, 납골당, 장례식장, 이장, 개장 등 알선 서비스

앞으로 좀 더 많은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루 가내에 평온과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문의 : 1833-2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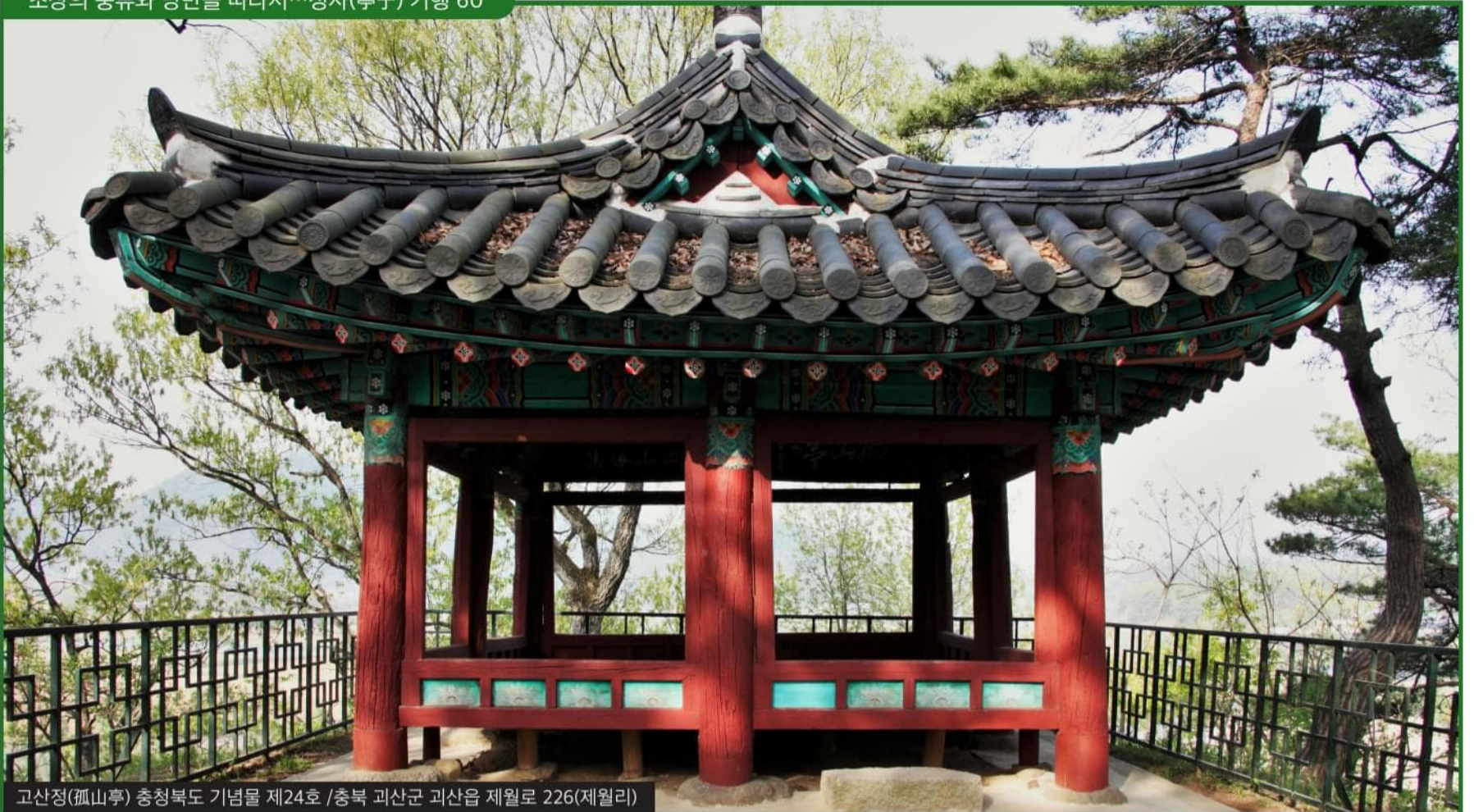
숲속 한방랜드(주) 숯가마 사우나

도심에서 즐기는 숯가마 찜질 여행
당신의 생활 속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봉원동 51
(시내버스 7024번 종점)
전화 : 02)365-2700~1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정자(亭子) 기행 60



고산정(孤山亭) 충청북도 기념물 제24호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제월로 226(제월리)

고산정(孤山亭)

유근(柳根)이 어지러운 정치를 피해 낙향(落鄉)하여 은거한 곳

성불산과 달천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조망을 자랑하는 곳으로, 고산 9경의 하나인 제월대 옆에 있다. 정자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멀리는 속리산에서 발원한 푸른 물이 정자 밑을 돌아 흐르고 남쪽으로는 작은 봉우리들이 마치 말을 탄 수천의 군사가 진을 친 듯이 보인다.

이곳의 풍광을 사랑했던 충청도 관찰사 유근(柳根 : 1549~1627)이 1596년(선조 29)에 만송정(萬松亭)과 고산정사(孤山精舍)를 짓고, 광해군 때 낙향하여 은거하였다고 한다.

숙종 때 편찬된 괴산군읍지(槐山郡邑誌)에 따르면 고산정사는 1695년(숙종 21)에 화재로 전소되어 없어지고 이후의 기록에는 고산정사의 재건과 관련된 언급이 없어 지금 '고산정'이라 부르는 건물은 만송정을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시문(詩文)에 뛰어나 선조의 총애를 받았던 유근은 이조참판, 도승지, 예조판서 등을 거쳐 대제학, 좌찬성에 이르렀다. 그러나 광해군이 즉위한 후 사직하고 괴산에서 은거하다가 1623년 인조반정 이후 다시 기용되자, 병을 이유로 상소하여 사퇴를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아 다시 벼슬길에 올랐다. 그 후

1627년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왕을 호위하여 따르다가 통진(通津)에서 졸하였다. 시호는 문정이며 저서로는 「서경집」이 있다.

건물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올린 단층 목조건물로 지어졌으며, 사면 모두를 개방하고 마룻바닥을 따라 평난간을 돌렸다. 조선 후기에 지어진 충청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정자로 알려져 있다.

정자에는 이원(李元)이 쓴 고산정(孤山亭)이란 현판과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1606년(선조 39)에 쓴 호산승집(湖山勝集)이라는 편액, 그리고 명나라 사신 웅화(熊化)가 1609년(광해군 1)에 쓴 고산정사기(孤山精舍記)가 있다.

유근(柳根)의 장편시(詩) 「고산시(孤山詩)」 중 한 부분을 소개한다.

浣花溪似映花潭 (완화계사영화담)
蒼壁干霄插渺漫 (창벽간소삽묘만)
霽月光風在懷袖 (제월광풍재회수)
林翁溪友交巖巒 (임옹계우교암만)

有時棹舟或策蹇 (유시도주혹책견)
嶺上歡迎興非淺 (영상환영흥비천)

완화계(浣花溪) 같은 영화담(映花潭), 창벽(蒼壁)은 구름을 뚫고 아스라이 솟아 있다. 제월대(霽月臺)의 비 갠 풍광이 가슴 속에 남아 있고,

임포(林浦) 같은 산골 친구들과 바위를 벗 삼는다. 때로 배를 짓거나 당나귀를 채찍질하여 들어가니, 고개 마루에서 환영하느라 흥에 겹다.

글/사진 선암 석인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고산정 현판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나 각 화주스님께 문의하시어 무료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백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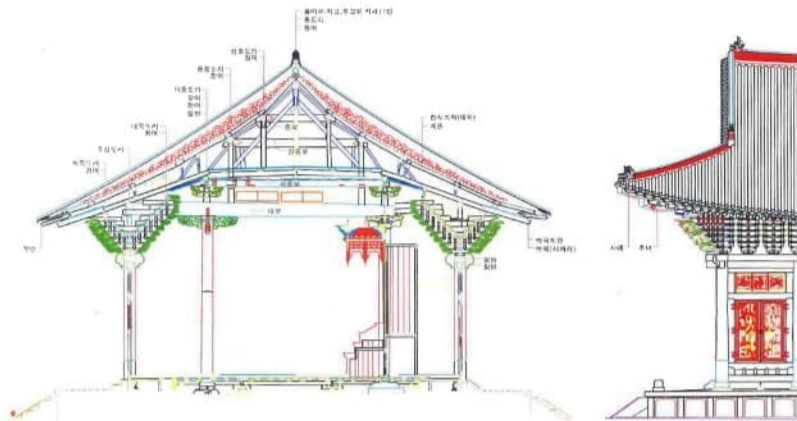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정비 불사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모연부재목 (시주내용)							단위:만원	
부재명	주너	사래	도리	장어	사까래	개편	부연	기와(대외)
모연금	500	200	100	50	20	20	10	2

□ 시주문의 : 종무소 02-392-3007~3008



삼천불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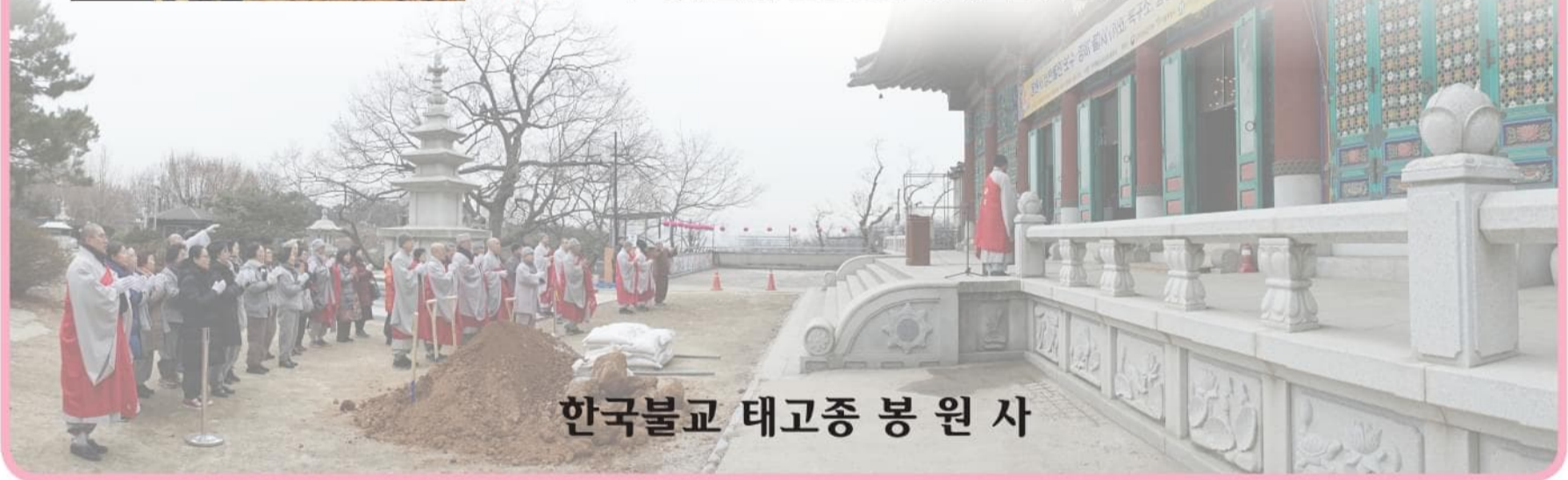


시삽식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봉원사 자원봉사단 단원모집 안내 ☘

귀의 삼보하옵고, 봉원사 도량내 기와불사와 시주접수처 업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봉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 소년원 등 사회 각지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